

익산 미륵사 목탑지 보완조사 성과 공개

백제시대 목탑지 기단 축조방식 규명... 오늘 자문회의·현장설명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익산 미륵사 목탑지 보완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목탑지 기단 내·외부 축조공정의 순서와 방법, 중원 목탑과 서원 석탑의 축조 순서, 목탑의 평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어 16일 오전 10시 발굴현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목탑지는 1981년과 1994년 조사를 통해 잔존 양상과 하부구조의 특징이 확인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잔존한 기단을 중심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탑지 중앙부에 한해 하강 조사만 이루어진 까닭에 목탑지의 전체 규모 및 내·외부 축조공정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완조사에서는 향후 정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조사하지 못했던 목탑지 내외부를 중심으로 평면조사와 탐색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목탑지 기단 내·외부 축조공정의 순서와 방법을 확인했다. 과거 지면을 정지한 다음 기단 최하부에 갯 돌과 흙을 쌓아 배수를 원활히 하고 기단 기초부를 단단히 다져 올렸다. 그 뒤 기초부 상부에는 외부 5~6

단, 내부 2단의 석축을 안팎의 다진 흙과 함께 쌓아 올렸다. 석축 내부는 성질이 서로 다른 흙을 시루떡처럼 수평으로 다짐 쌓기 하여 기단부를 만들었고 외부는 경사지게 흙을 쌓아 주변부를 조성했다.

외부 탐색조사 과정에서는 중원 목탑과 서원 석탑의 축조 순서를 알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서원 석탑의 경우, 대지조성층을 파고 기초부가 마련된 반면에 중원 목탑의 기초 터파기와 성토는 대지조성 이전에 이루어져 사역 중심인 목탑지를 중심으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탑의 평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상하층 기단부의 굴광흔적을 확인하였다. 과거 목탑지의 유실이 심하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북쪽 기단 일부분에서 후대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백제시대 최대 규모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는 익산 백제 왕궁지(왕궁리유적)와 더불어 백제 무왕의 익산 경영을 보여주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중 하나이다. 특히 미륵사는 삼국유사

(三國遺事)·삼국사기(三國史記) 등 사료와 미륵사지 석탑 출토 금제사리부영기를 통해 창건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역사 기록과 고고학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 유적이다.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는 1974년 동탑 조사를 시작으로 1994년까지 3차 15개년에 걸친 체계적인 조사와 2009년 석탑 기단부 발굴조사 등을 통해 백제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음이 규명되었다. 미륵사지는 다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3일 병렬식의 독특한 가람배치임이 밝혀졌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익산시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번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 보완조사를 시작으로 조사·연구 성과를 고도화하여 향후 진정성 있는 고증·복원을 위한 용·복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찾아가는 소리축제' 참여 학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22 찾아가는 소리축제'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리축제는 2015년부터 전북교육청과 함께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소리축제' 진행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우수한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도 국내의 수준 높은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대만, 폴란드, 스페인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직접 찾아가갈 계획이다.

이에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s://forms.gle/8MHfirimahXvif7>)을 통해 신청받는다.

올해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신규 신청 학교를 우선으로 하며, 교내 무대 상황 및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이달 23일 축제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연은 9월 16일부터 10월 7일 중 각 학교에서 진행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예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문화 예술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히고, 예술적 감각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전북 도내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익산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서동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다이로움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 뉴스 신뢰도 46개국 중 40위... 2단계 하락

뉴스 이용자 67%, 뉴스 회피 경험... "신뢰할 수 없어"

한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 순위가 46개국 중 40위로,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내려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 15일 공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2%p 낮아진 30%였다. 46개국 평균은 42%로, 지난해보다

2%p 낮아졌다.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였다. 핀란드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미국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은 28%로, 지난해에 이어 46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뉴스 이용자 67%는 뉴스를 의도적으

로 회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이용자의 42%는 "뉴스가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라고 답했다.

재단과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접한 뉴스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지 않으려 하지만, 동시에 특정 주제의 뉴스에 많이 노출돼 정보 과잉으로부터 오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군산예술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29일 대공연장서 '우쿨렐레와 함께 듣는 민요, 황애리'

무더위가 점점 느껴지는 6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우쿨렐레와 함께 듣는 민요, 황애리' 하우스 콘서트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마련했다.

젊은 국악인 황애리는 전북 남원출신으로 지난 2006년 국립창극단 창극 '심청'의 최연소 주연으로 발탁된 실력파 소리꾼으로 2019년 '서울민요'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우쿨렐레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하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

를 관객들이 무대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여 정석 무료로 운영되며 티켓링크에서 15일부터 사전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평관 기자



익산시, 시민·시립예술단 함께하는 '다이로움 콘서트'

18일 서동공원 야외 특설무대서 온·오프라인 개최

익산시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한다.

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서동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다이로움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권역별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이다.

시립무용단에서는 '태평연화'와 '강강술래',

시립풍물단에서는 '토닥토닥'과 '뽕긋', 시립합창단에서는 '경복궁 도라지타령'과 '바람의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 당일 현장 방문하거나 익산시립예술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